하루를 시작하며

그래야 제주가 산다

허 경 자
제주EV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백신과 더불어 기후변화위기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기후변화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유럽주요국 역시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이다. 이를 볼 때 향후엔 풍력과 태양광의 재생에너지시장이 전력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기업이 독점하던 일방적 공급에서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하는 다양한 생산자 출현과 함께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탄생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심화되면서 탈탄소에서 출발한 각국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기차 및 수소차 확대를 유발하고 에너지저장장치인 ESS와 2차전지의 수요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에는 분산전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까지 가속화되면서 향후 에너지생태계는 극심한 변화 속에 세계경제 패권다툼의 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를 내세우며 탄소감축에 앞장서 왔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진행했고 세계환경보전총회 제주 개최를 기점으로 주변섬의 융복합사업을 주도하는 선례를 남겼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개최된 국제전기차엑스포의 성황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의 성과를 이뤘고, 산자부는 얼마전 제주를 방문해 분산전원시스템 구축을 발표하며 특구 지정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넷제로(NET ZERO) 확산 움직임에 그동안 탄소저감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제주는 이미 선행적 결과의 축적물을 가지고 앞선 노력들이 그 가치를 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 보면 뭔가 아쉽고 공허하다. 풍력을 먼저하고도 제주는 이를 기반으로 한 후방기업군이 아직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호남에서는 풍력기술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던데 제주는 풍력을 강제로 멈춰야하는 출력제한이 뜨거운 이슈이다. 감귤 밭에 설치한 태양광은 기대보다 수익보전이 어려운게 현실이고 태양광 출력제한 또한 목전에 와있다. 섬의 한계를 장점으로 살려낸 전기차보급의 영광도 타시도에 뒤지고 곧 도래할 폐배터리 양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무엇이든 제주가 먼저 고민하고 앞서 실천해왔는데 우리는 선도적 축적물을 가지고도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중에 있다. 청년들의 꿈과 일자리가 담긴 미래산업으로 충분히 키워나갈 구슬이 서말인데도 이를 꿰려는 실천의지와 응집력은 여전히 부족해만 보인다.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해 P4G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주에는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 CFI미래관이 문을 열었다. 전도민이 꿈꾸는 제주의 가치를 영속시킬 세계환경수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또한 실물경제인 한국판 그린뉴딜과 긴밀히 이어져있다. 백신접종을 본격화하면서 각국이 컨택트 시대로의 재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요즘, 한국 정부는 물론 제주도와 기관, 제주기업과 대학은 그동안 느슨했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신속하고도 힘차게 에너지자립섬, 분산전원특구로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제주가 산다.

사설

영리병원, 더 이상 '분란거리' 안된다

영리병원 존폐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불과 3년전 녹지병원에 대한 첫 영리병원 허가로 지역사회 큰 갈등을 빚은데다 여전히 법적 분쟁 상태인데도 '영리병원 특례' 존폐를 둘러싼 찬반이 나뉜다. 이제 영리병원은 더 이상 도민사회 갈등을 키울 '분란거리'로 남겨둬선 안된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때다.

최근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의 하나로 외국인 설립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조건을 구체화한 법 개정 의견을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의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로 불거진 법적 분쟁을 감안해 내국인 진료제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법에 담자는 입장에서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법에 명시하면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붙이지 않아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도의회는 폐지 입장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도의회TF는 지난달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특례를 담은 조항 전부 삭제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2018년 10월 도민 공론조사에서 녹지병원 개설에 반대의견이 우세한데다 국가건강보험 의료체계를 해치는 구조라 영리병원 규정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향의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와 의회간 입장차는 오는 7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 조율에 나선다지만 의견 통일 여부는 미지수다.

제주는 물론 전국적 논란을 가져온 영리병원 존폐 여부는 이제 특례 삭제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여전히 공공의료체계 붕괴에다 국내 의료인의 영리법인 우회투자,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우려되는 부작용을 중시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내국인 제한' 등의 조건부 허용으로 또다시 야기될 '불씨'를 남겨놓을 필요도 없다.

킥보드 타려면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가 여전히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필히 착용해야 하는 헬멧을 쓰지 않거나 타면 안되는 인도에서 통행하는 사례가 적잖아서다. 그런가하면 길바닥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우려스럽다.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15세 이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없다. 또 헬멧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는 이같은 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인도로 통행하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목격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땐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데 킥보드를 탄 채 이동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였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이용자들이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염려된다. 헬멧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를 쓰지 않은 이용자들이 자주 목격돼서 그렇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관광객이 볼라드를 들이받아 숨진 바 있잖은가.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열린마당

'미니, 간편' 그리고 '맛'

오 상 석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최근 소비자의 농산물 선택 키워드는 '미니, 간편'이다. 물론 '맛'은 빠질 수 없다.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며 크기가 작은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 먹기 편리한 농산물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주에서는 기존 작목 틈새에 새로운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 그중 선두주자, 애플수박과 초당옥수수를 소개한다.

수박은 1인 가구가 먹기 힘든 대표 과일이다. 여름철 수박 만한 과일이 없지만 큰 수박은 엄두가 안나고 조각 수박은 위생상 선뜻 손이 가질 않는다. 애플수박은 무게 1㎏ 내외로 기존 수박의 5분의 1 정도의 미니수박이다.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다. 육질은 아삭하고 당도는 12브릭스로 일반 수박보다 달다.

초당옥수수는 우리가 알던 옥수수가 아니다. 이름 그대로, 당도가 높아 초당 혹은 단옥수수로 불리며 실제 당도는 16~18브릭스에 달한다.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서 몇분 조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초여름 딱 한철에만 맛볼 수 있어 몇 년 새에 가장 핫한 여름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 농업은 변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작목에 벗어나 새로운 작목을 찾고 새로운 작형을 모색한다. 소비 트렌드의 움직임, 소비시장의 다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6월에는 애플수박과 초당옥수수를 맛보기를 권한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이 없다는 그 맛에 빠질 것이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초당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호국보훈의 길"

원 지사 방역·접종 총력 주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공직자들에게 "도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애국선열에 보답하는 호국보훈의 길"이라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확대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

원 지사는 이날 "6월 호국 보훈의 달은 피와 땀, 눈물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되돌아보고 그 정신을 기리는 달"이라고 강조.

이어 "눈물겹게 지켜낸 제주공동체와 대한민국이 신종 감염병 위협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함께 이겨낼 새로운 힘을 찾게 해줄 것"이라고 한마디. 이상민기자

기초학력 부진 해소 온 힘

○…최근 성산지역 학교장들과 이석문 교육감과의 '생생토크'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공유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대책이 중점 논의.

이날 일부 학교장들은 일부 학년에서 3R's(읽기, 쓰기, 셈하기) 미도달 학생이 나오고, 지난해에 비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다소 늘어나 담임교사 책임지도제 등 학생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

이 교육감은 "모든 배경 지식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독서"라면서 "꾸준한 독서가 기초학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오은지기자

'자체 외부청렴도' 진단

○…서귀포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시와 업무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평가단으로 구성,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

시는 평가항목으로 친절성·적극성, 금품·향응·편의제공 경험, 업무처리 만족도 등 5개 영역·9개 설문으로 구성.

시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청렴포털 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소식방 운영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1년 5월 14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6월 2일

제이에이치엘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 69, 102동 101호 (강정동, 강정지예타운)
청 산 인 이 현 준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그랜드 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상당 녹용 선착순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토지 급매 가격
1) 서귀포 범섬 최고 전망[특A+++]
건축허가 완료, 10필지 중 토지 150~220평 단, 8개 남음 ★평당 22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호근동 별장부지
범섬 조망 최고, 서호초 2분, 하나로마트 3분거리 총 681평 ★150만원★
4) 강정동 해안도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최고, 호텔 및 고급 빌라 부지용, 총 2486평 ★190만원★
5) 월평동 해안도로 초근접
바다조방, 한라산 조망 최고, 카페부지 특 A+++ 총 1635평 ★85만원★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월평동
바다조망 한라산조망 건축허가 150평, 180평, 380평, ★160만원★
010·5432·3543, 010·4627·354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